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로 본 상서로운 산[瑞山]의 위치에 관한 고찰

- 여러 견해를 중심으로 -

강 창 룡(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목 차 -

- I. 머리말
- II. 『세종 실록』 「지리지」와 『고려사』 「오행지」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의 용출
- III. 『신증동국여지승람』·읍지와 일기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의 용출과 위치 비정
- IV. 일제 식민지 시대 지질학 연구와 고고학적으로 본 상서로운 산의 용출
- V. 맺음말 - 향후 과제와 제언

I. 머리말

원삼국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존재했던 탐라국(耽羅國)·탐라, 탐라현(耽羅縣)·탐라군(耽羅郡)에 관한 내용을 문헌으로 전해주는 역사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동문선(東文選)』·『익재난고(益齋亂藁)』·『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동사강목(東史綱目)』·『치평요람(治平要覽)』·『동국통감(東國通鑑)』·『해동역사(海東釋史)』 등의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된 중국·일본 역사서로는 『후한서(後漢書)』·『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북사(北史)』·『수서(隋書)』·『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한창려집(韓昌黎集)』·『당회요(唐會要)』·『자치통감(資治通鑑)』·『책부원귀(冊府元龜)』·『원풍류고(元豐類稿)』·『몽계필담(夢溪筆談)』·『사문유취(事文類聚)』·『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원사(元史)』·『신원사(新元史)』·『명사(明史)』·『명실록(明實錄)』·『국각(國榷)』·『일본서기(日本書紀)』·『속일본기(續日本紀)』·『연희식(延喜式)』·『주방국정세장(周防國正稅帳)』 등이다.

이와 같은 역사서에는 탐라국·탐라에 관한 일반적이며 조공(朝貢)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주로 탐라국·탐라에서 고구려·백제·신라·고려 등 중앙 정부에 조공하거나 중국에 탐라 사람들이 표류(漂流), 탐라국·탐라의 역사·생업·인물, 탐라에서 일어난 민란, 탐라에 부임한 부사(副使)·목사(牧使), 탐라에 삼별초의 입도와 항거, 원나라 지배 등등에 관련된 자료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천지 자연의 변동과 괴변에 관한 내용이 위의 역사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려사』 「오행지」에는 탐라에서 천지 자연의 변동과 괴변에 관한 내용이 세 가지

만 있을 뿐이다. 먼저 고려 고종 22년(1220) 3월에 탐라군에서 돌 백여 개가 저절로 이동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돌은 돌아오고자 하다가 주저 않고 나머지 돌은 모두 주저앉아 가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다음으로는 고려 목종 5년(1002)과 목종 10년(1007)에 탐라에서 솟아난 상서로운 산에 관한 내용이다.

고려 목종 5년(1002)과 목종 10년(1007)에 상서로운 산의 용출에 대한 연구는 「탐라시 삼십오절(耽羅詩三十五絶)」(1487년)·『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남사록(南槎錄)』(1601년)·『남환박물(南宦博物)』(1704년)·『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1841년)의 문헌에서 위치를 비정한 바가 있다. 더욱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제주화산도잡기(濟州火山島雜記)」(1925년)·「제주도의 지질학적 관찰(濟州島の地質學的觀察)」(1928년)·「제주화산도(濟州火山島)」(1930년)·「제주도의 지질(濟州島ノ地質)」(1931년), 1986년에 「서산 용출(瑞山湧出)에 대한 고찰」이다. 이 연구들은 상서로운 산의 위치를 문헌 기록과 지질학적 연구로 한 지역으로 비정한 후에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상서로운 산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지 않고 정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필자는 먼저 상서로운 산의 용출에 대하여 서술된 고려·조선 시대의 문헌 기록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지질학적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서로운 산의 위치를 비정한 지역이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인 유적과 유물을 살펴본 후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종실록』 「지리지」와 『고려사』 「오행지」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의 용출

조선 왕조 초기의 세종(世宗) 때에는 지배 질서가 크게 자리 잡혀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내적으로는 제반 문물제도의 정비, 대외적으로는 영토의 확장으로 인해 정치·경제·군사 등에 관한 자료의 전국적인 실태 파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때에 만들어진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는 조선 왕조의 초기에 통치 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국의 지리지를 만들고자 하는 조선왕조의 의도에 따라 『세종실록』 「지리지」는 편찬되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임금의 명(命)에 의하여 윤준(尹准)·신색(申穡) 등이 세종 14년(1432)에 편찬하였다. 특히 『세종실록』 권말(卷末)에는 「지리지」 뿐만 아니라 「악보(樂譜)」·「오례의(五禮儀)」·「칠정산 내편(七政算內篇)」 등 여러 편의 「지(志)」가 부록으로 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가 전국적인 지리지였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경상도지리지』의 「일반 군현(一般郡縣)-서술 규칙(敘述規式)」에 나타난 한 항목에 의하면,

一. 토성(土姓)은 벼슬·덕(德·공(功)·업적(業績)에 따라 출중(出眾)한 이는 어느 시대에 누구라고 시행하며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상한 일의 자취를 아울러 사실대로 적을 일.¹⁾

이와 같은 한 항목에 따라 세종 7년(1425) 제주목사(濟州牧使) 조희정(趙希鼎)은 예조(禮曹)에 보고했다. 이를 예조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세종실록』 「권일백오십일, 지리지-전라도·제주」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세종실록』 「권일백오십일, 지리지-전라도·제주」,

이상한 일(靈異)은 고려 목종 5년 임인(壬寅;1002) 6월에 탐라(耽羅)에서 산에 구멍 네 개가 뚫어서 붉은 물이 치솟아 올랐다. 10년 정미(丁未;1007)에는 바다 가운데 산이 하나가 솟아 나왔다. 탐라에서 보고하니, 왕이 태학박사(太學博士) 전공지(田拱之)를 보내어 가서 조사하게 하였다.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솟아 나오는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 벼락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 무릇 칠주야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었는데, 산에는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만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다보니 석류황과 같기도 하여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공지가 몸소 산 아래에까지 나아가 그 모양을 그려서 나라에 바쳤다.²⁾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종 5년(1002)의 기록 중에 ‘구멍 네 개가 뚫어서[開四孔]’라는 것은 화산의 터진 구멍(火口)의 의미를, ‘붉은 물[赤水]은 마그마가 화산의 터진 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목종 10년(1007)의 기록 중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雲霧晦冥]’이라는 것은 화산 활동에서 볼 수 있는 연기가 내뿜는 현상을, ‘벼락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地動如雷]’이라는 것은 화산 활동에 수반되는 땅이 울리어서 흔들려 움직이는 현상을, ‘석류황[石硫黃]’은 유황(硫黃) 분의 함유된 내뿜은 물질의 성질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는 세종 31년(1449)에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이 편찬하기 시작하여 2년 후인 문종(文宗) 원년(1451) 8월에 완성한 역사서이다. 『고려사』에는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 총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에는 「천문지(天文志)」·「역지(曆志)」·「오행지(五行志)」·「지리지(地理志)」·「예지(禮志)」·「악지(樂志)」·「선거지(選舉志)」·「백관지(百官志)」·

1) 『慶尙道地理志』 「一般郡縣-敘述規式」,

一. 土姓從仕德功業出眾者 某代某人是如施行爲 古昔相傳 靈異之跡 以開寫事

2) 『世宗實錄』 「卷一百五十一, 地理志-全羅道·濟州」,

靈異 高麗穆宗 五年 壬寅六月 耽羅山 開四孔 赤水湧 十年丁未 有山湧出海中 耽羅以聞 王遣大學博士 田拱之 往驗之 耽羅人言 山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凡七晝夜 始開霽 山無草木 煙氣幕其上 望之如石硫黃 人不能進 拱之躬詣山下 圖其形以進.

「식화지(食貨志)」·「병지(兵志)」·「형법지(刑法志)」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오행지」는 「천문」·「역지」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진 지(志)이다. 「오행지」의 내용은 오행(五行)에 관계되는 사실을 순서대로 수록한 것이다. 이 오행의 순서는 ①물[水], ②불[火], ③나무[木], ④쇠[金], ⑤흙[土]으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오행지」 1에는 물·불에 관한 것을 실고, 「오행지」 2에는 나무·쇠에 관한 것을 실었다. 「오행지」 3에는 흙에 관한 것을 수록하였는데 흙의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 따라서 오행의 내용은 고려 시대에 일어났던 괴이(怪異)한 변고(變故)의 사실을 수록했다. 제1의 물에 관한 것에 실린 재이(災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것은 바로 홍수·물의 재난·차가운 눈·우레와 천둥·무지개·이무기가 변하여 된 용·물고기의 말라죽음·말의 기이함·돼지의 괴상함·생산의 변고·천지 자연의 변동과 괴변·벼락과 번개·떨어지는 서리·많이 오는 눈·우박·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신기루 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천지 자연의 변동과 괴변에서 탐라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인지 등편의 『고려사』 「지 권제구-오행 삼」,

목종 5년(1002) 6월에 탐라에서 산에 네 개의 구멍이 뚫어지며 붉은 물이 치솟아 나오다가 5일 만에야 그치었다. 그 물이 모두 영키어 기왓돌[瓦石]이 되었다.

목종 10년(1007) 탐라의 바다 가운데에서 상서로운 산[瑞山]이 솟아 나왔으므로 대학박사(大學博士) 전공지(田拱之)를 보내어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때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캄캄해지면서서 벼락치는 것같이 땅이 움직였다. 무릇 칠주야 지나서야 비로소 개었다. 그리고 산의 높이는 백여 장(丈)이 되고 주위는 사십여 리(里) 가량 되며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만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다보니, 석류황과 같기도 하여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전공지가 몸소 산 아래에까지 나아가 산의 형상을 그려서 나라에 바쳤다.³⁾

위의 기록과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 다른 점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고려사』 「지-오행」에는 기록이 나타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서술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는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목종 5년의 기록에는 ‘5일만에 그치었다. 그 물이 모두 영키어 기왓돌(瓦石)이 되었다’ 라는 내용 자체가 없다. 게다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목종 10년의 기록에는 ‘상서로운 산’ 과 ‘산의 높이가 백여 장(330m)과 주위는 40여 리(16 km)⁴⁾ 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차이일 뿐이다.

3) 鄭麟趾 等編, 『高麗史』 「志 卷第九-五行三」,

穆宗 五年六月 耽羅山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 十年 耽羅瑞山湧出海中 遣大學博士田拱之 往視之 耽羅人言 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凡七晝夜 始開霽 山高可百餘丈 周圍可四十餘里 無草木 煙氣幕其上 望之如石硫黃 人恐懼不敢近 拱之躬至山下 圖其形以進.

더구나 목종 5년(1002)의 기록 중에, ‘모두 영키어 기왓돌(瓦石)이 되었다[成瓦石]’ 라는 것은 용암이 굳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목종 10년(1007)의 기록 중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不可近]’이라는 것은 고체가 열에 녹아 액체가 되는 일[熔融] 상태의 마그마가 뿜어내는 뜨거운 기운이 위험성을 설명해 주는 자료다.

Ⅲ. 『신증동국여지승람』· 읍지와 일기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의 용출과 위치 비정

조선 왕조 성종 12년(1481)에 왕의 명령에 의하여 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등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다. 이 『동국여지승람』은 50권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중종 26년(1531)에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행(李荇)이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 증보하였다는 의미에서 신증(新增)이 붙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라 부르게 되고 5권이 더해져 55권이 되었다. 하지만 원본 『동국여지승람』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 55권이다.

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일반 군·현(郡縣) 지방은 곳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1조목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21조목은 「건치연혁」·「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土產)」·「성곽 또는 관방(關防)」·「봉수(烽燧)」·「누정 또는 누관(樓館)」·「학교」·「역원」·「교량」·「창고」·「불우」·「사묘 또는 사단(祠壇)」·「능묘 또는 총묘(冢墓)」·「능침(陵寢)」·「고적」·「명환」·「인물」·「제영」 등이다. 이 가운데 「고적」의 종류에는 옛 성터, 역(驛)·폐현지(廢縣址)·유서 깊은 건물·향(鄉)·소(所)·부곡(部曲)·역사적 전설이 있는 곳·탑(塔)·비석·궁터·종(鍾)·전쟁터·고목(古木) 등 여러 가지다.

한편, 중종 명찬(中宗 命撰)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제주목-고적조」,

상서로운 산(瑞山) : 고려 목종 5년(1002) 6월에 산이 바다 가운데에 치솟아 나왔다. 산에 구멍 네 개가 뚫어서 붉은 물의 솟아 나와 닦새만에 그치었다. 그 물이 모두 영키어 기왓돌이 되었다. 고려 목종 10년(1007)에 상서스러운 산이 바다 가운데에 솟아 나왔다. 태학박사 전공지를 보내어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때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캄캄해지면서 벼락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 무릇 칠주야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이었다. 산의 높이가 백여 장이 되고 주위가 사십여 리나 가량 되며,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다보니, 석류황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공지가 몸소 산 아

4) 1장(丈)은 10자(尺)이다. 10자는 3.3m이기에 100장×3.3=330m이며, 1리(里)는 400m이므로 40×400m=16,000=16km이다.

래에 이르러 그 모양을 그리어 바치었다” 하니, 지금은 대정현(大靜縣)에 속한다.⁵⁾

중종 26년(1531)에 기록은 『고려사』의 내용과 똑같은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과는 비슷하다. 다만 목종 5년(1002)에는 탐라가 빠지는 대신에 ‘바다 가운데(海中)가 추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종 10년(1007)에는 ‘상서로운 산이 위치한 곳은 대정현⁶⁾’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점이 특이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상서로운 산은 ①가파도, ②군산으로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더구나 목종 5년(1002)의 기록 중에, ‘바다 가운데에 치솟아 나왔다[湧出海中]’라는 것은 바다에서 솟아 오른 ‘해중 폭발(海中爆發)’을 의미하는 것이다.

1. 가파도 설

이형상(李衡祥), 『남한박물(南宦博物)』 「지도(誌島)」에 의하면,

죽도(竹島; 차귀도-필자주) 남쪽에 가파도(加波島)가 있는데, 수로는 삼십리이고 둘레는 사십리이다. 수목은 없고 풀이 많이 무성하여 개인 말의 목장으로 하였다. 고려 목종 5년(1002) 6월에 산이 바다 가운데에 치솟아 나왔다. 산에 구멍 네 개가 뚫어서 붉은 물의 솟아 나와 닷새만에 그치었다. 그 물이 모두 영키어 기왓돌이 되었다. 또 목종 10년(1007)에 상서로운 산이 바다 가운데에 솟아 나왔다. 태학박사 전공지를 보내어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때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캄캄해지면서 벼락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 무릇 칠주야가 지나야 비로소 개이었다. 산의 높이가 백여 장이 되고 주위가 사십여 리나 가량 되며,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다보니, 석류황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공지가 몸소 산 아래에 이르러 그 모양을 그리어 바치었다”. 『여지지(輿地誌)』에 말하기를, 지금은 대정현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이 섬(가파도-필자주)이 아닌가 한다. 『남사록(南槎錄)』은 제주 비양도(飛揚島)도 마땅하다 하였는데, 비양도의 둘레는 10리에도 미치지 않는다. 우도(牛島) 외에는 둘레가 원래 삼~사십리 가량의 섬이 없다. 『고려사』에 그린 사십여리라고 한 것은 이것 아니면 비슷한 것이 없다. 노인[故老]나 아전과 백성[吏民]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얘기가 없으니 문혀져 버릴 만하다.⁷⁾

5) 中宗 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三十八卷 濟州牧 古跡條.

瑞山 : 高麗穆宗 五年六月 有山湧海中 山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 十年 瑞山湧出海中 遣大學博士田拱之 往視之 人言 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凡七晝夜 始開霽 山高可百餘丈 周圍可四十餘里 無草木 煙氣幕其上 望之如石硫黃 人不恐懼不敢近 拱之躬至山下 圖其形以進 今屬大靜縣.

6) 대정현(大靜縣)은 조선 왕조 태종 16년(1416)부터 1910년까지 존속하였다. 특히 대정현이 동쪽으로는 현재 서귀포시 법환동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까지가 경계였다. 대정현의 중심이 되는 고을은 현재 대정읍 안성리·인성리·보성리였다.

이형상 제주목사는 숙종 28년(1702) 3월에 도입하여 숙종 29년(1703) 5월 체귀하였다. 그러다가 병와(瓶窩) 이형상은 제주목사에서 이임한 다음 해인 숙종 30년(1704)에 『남환박물』을 간행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병와 이형상은 목종 10년(1007)에 상서로운 산의 주위가 사십여 리이었기에 가파도로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상서로운 산이 위치한 곳을 대정현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형상 제주목사는 노인이나 아전과 백성들 사이에 상서로운 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이 문혀져 버릴 것 같아서 기록해 두었다.

2. 군산 설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대정(大靜)-고적조(古蹟條)」,

상서로운 산 : 고려 목종 10년(1007)에 상서로운 산이 바다 가운데에 치솟아 나왔다. 태학박사 전공지(田拱之)를 있어서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산이 처음 나올 때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캄캄해지면서 벼락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 칠주야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었다. 산은 높이가 백여 장이 되고 주위는 사십여리 가량 되며, 풀과 나무는 없고 연기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다보니, 석류황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공지가 몸소 산 아래에까지 이르러 그 모양을 그리어 바치었다. 상서로운 산이라 부르는 것은 지금의 군산(軍山)이라 칭한다.⁸⁾

이원조 제주목사는 현종 7년(1841) 3월 도입하여 현종 9년(1843) 6월 체귀하였다. 이원조 제주목사의 『탐라지초본』은 현종 7년(1841)에 간행된 읍지이다. 『탐라지초본』에는 제주도의 인물·지지·호구·풍속·사적·도서(島嶼)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탐라지초본』에 의하면, 이원조 제주목사는 상서로운 산의 위치를 군산으로 비정하였다. 하지만 상서로운 산의

7) 李衡祥, 『南宦博物』 「誌島」.

竹島南有蓋波 水路三十里 周四十里 無樹木 多茂草爲私馬場 高麗穆宗 五年六月 有山湧海中 山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 十年 瑞山湧出海中 遣大學博士田拱之 往視之 人言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凡七晝夜 始開霽 山高可百餘丈 周圍可四十餘里 無草木 煙氣幕其上 望之如石硫黃 拱之不敢近 拱躬至山下 圖其形以進 輿地誌曰 今屬大靜 疑是此島 而南槎錄 以濟州之飛揚島當之 飛揚之周不滿十里 且牛島之外 元無三四十里 可面之島 麗史所圖四十餘里者 非此無可彷彿 而故老史民無有傳說 堪可埋沒.

8) 李源祚, 『耽羅誌草本』 「大靜-古蹟條」.

瑞山 : 高麗穆宗十年 瑞山湧出海中 有太學博士田拱之 往視之 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七晝夜 始開霽 高可百餘丈 周可四十餘里 無草木 煙氣幕其上 望之如石硫黃 人恐懼不敢 拱之躬至其下 圖其形以進 號瑞山 今稱軍山.

위치가 왜 군산이라고 비정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 없이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제주목-고적조」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이 위치를 대정현이라고 비정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3. 비양도 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海錄)』 권지삼(卷之三), 10월 17일,

지지(地誌)를 살펴보면, 비양도(飛揚島)는 제주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제주에서 이곳에 염소를 기른다고 이른다. 고려 목종 10년(원문에는 목종 16년으로 되어 있으나 목종 임금은 12년에 끝나고 있다. 따라서 목종 10년의 착오-필자주)에 산이 있어 탐라의 바다 가운데서 솟아 나온 것이 곧 이 섬이라고 이른다.⁹⁾

김상헌 안무어사(按撫御史)는 선조 34년(1601) 7월 제주에 파견되어 이듬해(1602) 2월 초 1일까지 기록한 일기가 있다. 이 일기가 바로 『남사록』이다. 이 『남사록』에는 김상헌 안무어사가 6개월 동안에 직접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남사록』에는 당시 제주 삼읍의 인구·기후·역사·지리·물산·풍속·언어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목민관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 왜구(倭寇)에 방어 시설과 성곽·군사·군량·병기, 나라에서 거두는 토산물의 수량 등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김상헌 안무어사가 제주 삼읍에 이르는 곳마다 읊은 시(詩)가 수록되어 있다. 『남사록』에 의하면, 김상헌 안무어사는 고려 목종 10년에 용출한 상서로운 산의 위치를 비양도로 비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서로운 산의 위치가 왜 비양도이라고 비정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 없이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4. 우도 설

김상헌의 『남사록』 권지3, 9월 22일,

최보(崔溥)의 「탐라시 삼십오절(耽羅詩 三十五絶)」 중에 21절.

海吐瑞山供逸趣 바다는 서산을 토해내 흥취를 갖추고
龍蟠牛島呈祥霧 교룡이 우도에 서렸으니 상서로운 징조라네.

9) 金尙憲, 『南海錄』 卷之三, 10월 17일,

按地誌 飛揚島在州西海中 州牧羔于此云 高麗穆宗十六年 有山湧于耽羅 海中者卽此島云.

山川喜我泛槎來 산천은 우리 떼 배 오가자 기뻐하오
 我亦有情堪指顧 나도 또한 정이 깊어 손으로 가리켜 보네.

최보는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가 되었을 때에 어명(御命)을 받들어 『동국여지승람』을 교정하였다. 최보는 여러 해를 보내며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도(道)·주(州)·부(府)·현(縣)이 있는 곳과 그 있던 자리는 이미 눈감고도 환하게 알았다. 오직 제주도 하나만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서울에서 수천리 떨어진 데 있었다. 그러므로 최보는 제주도에 대해 듣는 것만 가지고 글을 쓰려니 빠지는 것이 아주 심해서 한번 제주도 땅에 직접 가서 보고 바로 잡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성종 18년(1487) 9월에 ‘임금이 타는 말을 골라서 바치고 목장을 살피고 숨은 장정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양민과 천민을 구분과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없애라’는 최보가 어명을 받들고 제주추쇄 경차관(濟州推刷敬差官)으로 제주도에 왔다. 최보는 이 해 음력 11월 12일에 새로 부임하는 제주목사 허희(許熙)와 같이 7·8일 이후에 제주 삼읍을 순시하였다. 그리하여 최보는 제주 삼읍 산천의 지리가 좋고 요해지(要害地)라는 것이며, 인물과 풍속의 번성하고 화려한 것이며, 토산·관방·교량, 관청의 집들과 제사지내는 사당, 고적 등을 두루 보아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최보는 지난날의 연혁과 유적이 없어져서 들어볼 수 없음을 한탄스러워 했다. 그리하여 최보는 야사(野史)를 찾아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들은 바를 추려서 판단했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어 성종 18년(1487) 12월에 「탐라시 삼십오절」을 엮어 지었다. 최보는 「탐라시 삼십오절」 21절에 고려 목종 10년에 용출한 상서로운 산을 우도라고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보는 『동국여지승람』을 교정한 바 있었다. 따라서 최보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고적조」에 나타난 목종 10년에 용출한 상서로운 산을 우도로 위치를 비정했다.

IV. 일제 식민지 시대 지질학 연구와 고고학적으로 본 상서로운 산의 용출

1. 일제 식민지 시대의 지질학 연구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의 용출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제주도의 지질에 관한 최초의 문헌으로는 답사 당시 총독부 기사이며 1925년 당시에 경도제국대학 교수로 있는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郎)의 「제주화산도잡기(濟州火山島雜記)」(『지구(地球)』 제4권 제4호, 1925)이다.

이 「제주화산도잡기(濟州火山島雜記)-4. 역사상(歷史上)의 화산 활동(火山活動)」에 의하면,

중종 명찬(中宗 命撰)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제주목-고적조」,

상서로운 산(瑞山) : 고려 목종 5년(1002) 6월에 산이 바다 가운데에 치솟아 나왔다. 산에 구멍 네 개가 뚫어서 붉은 물의 솟아 나와 닳새만에 그치었다. 그 물이 모두 엉키어 기왓돌이 되었다. 고려 목종 10년(1007)에 상서스러운 산이 바다 가운데에 솟아 나왔다. 태학박사 전공지를 보내어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때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캄캄해지면서 벼락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 무릇 칠주야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이었다. 산의 높이가 백여 장이 되고 주위가 사십여 리나 가량 되며,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다보니, 석류황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공지가 몸소 산 아래에 이르러 그 모양을 그리어 바치었다” 하니, 지금은 대정현(大靜縣)에 속한다.

위 기사와 비슷한 내용이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권151 및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있다. 이 기사들은 서기 1002년과 1007년에 제주도에 화산의 활동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에 서산(瑞山)이라 부르는 산은 없으나, 『탐라사실(耽羅事實)』¹⁰⁾에 상서로운 산은 대정(大靜) 동쪽 25里¹¹⁾의 군산(軍山)이라 한다. 또 같은 책에 고려 목종(高麗穆宗)의 때에 용출한 비양도(飛揚島)가 있는데 이 섬 이름도 분화(噴火)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을 것이라 한다. …… 중략 …… 군산(軍山)은 섬의 남해안으로부터 2,300m의 거리에 있고, 높이 334m이다. 북쪽에 있는 산기슭으로부터 해발 약 220m까지 회색(灰色) 조면 현무암(粗面玄武岩)으로 이루어진다. 그 위에는 감람석 현무암(橄欖石玄武岩)과 현무암의 집괴암

10) 『탐라사실(耽羅事實)』은 조선사 편찬위원(朝鮮史編纂委員)인 가시와바라 쇼오조오(栢原昌三)의 『제주도 체방 사료(濟州島探訪史料)』 중 「제주도청 소장도서(濟州島廳所藏圖書)」 <대정(大正) 12년(1923) 8월 출장(出張)에 의하면,

“耽羅事實 光武辛丑歲マテッ載ス
表紙=耽羅事實トシ中=耽羅誌トス
1冊”라 했다.

이를테면 『탐라사실(耽羅事實)』은 광무 신축(光武辛丑, 1901년)까지 실려 있다. 표지(表紙)에는 『탐라사실(耽羅事實)』이나 속표지에는 『탐라지(耽羅誌)』이었으며 1책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남만리 편(南萬里 編)의 『탐라지(耽羅誌)』로 보인다. 왜냐하면 남만리 편(南萬里 編)의 『탐라지(耽羅誌)』 권지사(卷之四), 「대정현-선생록(大靜縣-先生錄)」에는 허철(許徹)은 광무 신축(光武辛丑, 1901년) 4월 27일에 특별히 천거(別薦)로 도입(到任)하여 같은 해 8월 15일에 공(公)이 상경(上京)으로 인하여 임인(1902) 1월 19일에 가산(嘉山)으로 이배(移拜)했다. 또한 남만리(南萬里)는 임인(1902년) 9월 초2일에 평택군수(平澤郡守)로 이배(移拜)했기 때문이다. 이 남만리 편(南萬里 編)의 『탐라지(耽羅誌)』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瑞山)에 관한 기록은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대정-고적(大靜-古跡)」 조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瑞山)’의 내용 그대로였다.

11) 원문에는 ‘2里半’이라 되어 있다. 일본의 리는 거리의 단위로서 1리는 대한민국에서는 10리가 된다. 따라서 2里半은 25리가 된다. 이를테면 2×10里+5리이기 때문이다.

(集塊岩)¹²⁾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은 해발 50m까지 산꼭대기(山頂)의 현무암이 흘러 내려간 것 같다. 산꼭대기에 분화구(噴火口)와 같은 것이 전혀 없으나, 그 동쪽 산허리와 남쪽 기슭에 가까운 곳에는 폭발하여 벌어진 분화구[爆裂火口]로 추측되는 것이 있다. 용암이 모습을 보니 가까운 시대의 분출(噴出)에 관계되는 것 같다. 뒤에 목종(穆宗) 10년의 분화(噴火)는 집괴암(集塊岩)을 흘러나온 것이 군산(軍山)의 활동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카무라 신타로 교수는 목종 5년(1002)의 분화를 서북부의 해안에 가까운 비양도로 보고, 목종 10년(1007)의 분화한 상서로운 산을 남해안에 가까운 군산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산은 집괴암(集塊岩)을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후에 조선총독부 지질조사 소장(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長)인 가와자키 시게타로(川崎繁太郎)는 1928년 7·8월에 걸쳐 조선교육회 주최로 제주도 하계 대학에 참가하였다. 이때에 제주도를 일주하여 살펴본 한 두개 사항을 기술한 것이 바로 「제주도(濟州島)의 지질학적 관찰(地質學的觀察)」이다. 「제주도의 지질학적 고찰」은 주로 일주일 동안 안에 조사한 지질학적 사항을 서술한 것이다. 이 「제주도의 지질학적 관찰」의 내용 일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선의 역사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고려 목종 5년(1002)에 분화가 있었다. 또 목종 10년(1007)에도 분화가 있어서 서산(瑞山)이라는 산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차례 분화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

「분화(噴火)」

다음으로 역사의 기록 후에 화산이 터져서 불기운을 내뿜는 현상으로는 고려 목종 때에 2회였음을 『고려사』와 기타 조선 역사서에도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화의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려사』 「오행 삼」에,

목종 5년(1002) 6월(서기 1002년에 해당한다-원문 주)에 탐라[제주도의 옛 나라 이름이다-원문 주]에서 산에 네 개의 구멍이 뚫어지며 붉은 물이 치솟아 나오다가 오일 만에야 그치었다. 그 물이 모두 영키어 기왓돌(진흙의 흐름이 아니겠는가-원문 주)이 되었다.

목종 10년(1007) 탐라의 바다 가운데에서 상서로운 산이 솟아 나왔으므로 대학박사 전공 지를 보

12) 집괴암(集塊岩)은 화산괴·화산탄·화산력 등이 무질서하게 모여 화산재나 용암으로 고결된 것이다. 특히 화산암괴(火山岩塊)는 화산쇄설물의 압편 또는 알갱이의 크기와 모양이 지름 32mm 이상인 것이다. 화산탄(火山彈)은 화산암괴와 화산력 중 특정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산력(火山礫) 또는 분석(噴石)은 지름 4~32mm인 것이다. 화산재(火山灰)는 4mm 이하인 것이다. 특히 화산진(火山塵)은 0.25mm인 미세한 가루를 지칭한다.

내어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때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캄캄해지면서 벼락치는 것같이 땅이 움직였다[지진이다-원문 주]. 무릇 칠주야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었다. 그리고 산의 높이는 백여 장이 되고 주위는 사십여 리 가량 되며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만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다보니, 석류황과 같기도 하여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전공지가 모소 산 아래에까지 나아가 산의 형상을 그려서 나라에 바쳤다.¹³⁾

이 시기는 1002년과 1007년에 두 차례 분화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제1회는 다분히 섬 안의 산이 폭발한 화산은 진흙탕이 되어 흘러내렸던 것 같다. 또 제2회 상서로운 산에서 솟아난 화산의 터져서 불기운을 내뿜는 현상은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두 차례 기록에는 그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그 위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적지 않지만은 각각 밝혀져서 참고될 만한 증거가 없다. …… 중략 …… 『탐라사실(耽羅事實)』에는 상서로운 산이 군산(軍山)이라고 하였다. 경성대학 나카무라 교수는 상서로운 산이 집괴암(集塊岩)을 유출시킨 군산이라 비정하였다. 또 제1회 화산이 터져서 불기운을 내뿜는 현상을 섬의 서북부 해안에 가까운 비양도라고 상정하였다. 이는 바로 비양도에는 화산이 터진 구멍이 몇 개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질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카이 박사는 그의 저서 『제주도식물조사보고서』에서 상서로운 산을 산방산(山房山)이라고 비정했다. 하지만 그 책에 부속된 지도에는 대략 지금의 모슬봉(慕瑟峯)에 해당하는 산을 산방산이라고 하였다. 산방산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대정 동쪽 10리에 못 미친 지점에 있는데 산방이라고 불리는 큰 바위에 뚫린 굴이 있다. 이 산방산에는 단애 절벽으로 둘러싸인 특수한 산이며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슬봉은 대정 서남쪽 5리 쯤에 있는데 이른바 모슬 후지라고 불린다. 이 모슬봉은 부드러운 산 모양을 하고 완만하며 긴 들판을 끌어안고 있다. 이 두개 산은 모두 이 섬에서 산의 형상에 양쪽의 극단(兩極端)을 대표하는 것이다.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상서로운 산이 둘레는 사십여 리, 높이가 백여 장이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비양도가 둘레는 10리, 우도가 둘레는 100리라고 했다. 상서로운 산이 섬 또는 반도(半島)라면 우도와 비양도의 중간쯤 된 크기로 볼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해안에는 그러한 정도의 섬 또는 반도가 없다. 게다가 상서로운 산이 아직껏 존재한다면 지반을 깎고 산을 무너뜨리는 작용에 의해 훨씬 작아졌을 것이다. 『탐라 사실(耽羅事實)』 신증(新增)(?-필자)에는 비양도를 유사 후(有史後)의 분화한 섬이라고 했다. 옛 책

13) 鄭麟趾 等編, 『高麗史』 「志 卷第九-五行三」,

穆宗 五年六月[西紀1002年に當る] 耽羅濟州島の古國名山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 [泥流なりしたらんか] 十年[1002年に當る] 耽羅瑞山湧出海中 遣大學博士田拱之 往視之 耽羅人言 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地震なり]如雷 凡七晝夜 始開霽 山高可百餘丈 周圍可四十餘里 無草木 煙氣幕其上 望之如石硫黃 人恐懼不敢近 拱之躬至山下 圖其形以進.

에는 상서로운 산을 섬의 남부에 있는 대정현이라 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섬 북부에 있는 비양도를 유사 후의 화산이 터져서 불기운을 내뿜는 현상으로 여긴다면 나카무라 교수가 상정한 바와 같이 제1회 분화한 산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제1회가 탐라의 산이라고 했고 제2회 상서로운 산은 탐라의 바다 가운데서 솟아 나왔다고 했다.

상서로운 산은 서산(瑞山)이라고 읽는다. 이 발음의 지명을 찾아보면 『1/5만 지질도』에 있어서는 제주의 동쪽 35리 지점에 있다. 곧 바다 가운데에 돌출하여 서산(犀山)이라고 씌어진 산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서산악(西山岳)이 제주(州) 동쪽 34리에 있다"라 했다. 이 서산(西山)은 『1/5만 지질도』 중의 서산(犀山)에 해당된다. 이 서산은 높이가 1백 11미터, 둘레는 약 1리이다. 북쪽의 반[北半]은 바다 가운데에 돌출해 있고 남쪽의 반[南半]은 조개 모래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상서로운 산은 서산(犀山)이 아닌가 의심되지만 섬 북쪽 해안에 있어서 대정 설과는 적합지 않다. 남쪽 해안에서는 성산(城山), 기타 의심을 가질만한 것이 있어도 지질학적 연구, 전설·구비(口碑) 등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제주도의 화산을 본격적으로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질(地質) 연구에 제일인자(第一人者)인 하라구찌 규우망(原口九萬)은 1930년에 발표한 『제주화산도(濟州火山島)』라는 논문이 있다. 이 『제주화산도(濟州火山島)』의 내용 일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카무라 신타로 교수는 목종 5년(1002)의 분화를 비양도, 10년(1007)의 분화를 군산으로 상정 하였으나 비양도는 1013년에도 분화를 한 기록이 있다. …… 중 략 …… 또한 10년(1007)에 분화한 상서로운 산[瑞山]의 위치를 확실하게 결정에 참고할 만한 증거가 없음이 진실로 유감이다. 상서로운 산[瑞山]의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설들이 일치하지 않으며, 『탐라사실(耽羅事實)』에는 대정 동쪽 25리에 있는 군산(軍山)이라고 되어 있고, 나카이 박사의 『제주도식물조사보고서』에는 서산이 산방산이라고 하며, 『남선보물 제주도(南鮮寶窟濟州島)』에는 상서로운 산[瑞山]은 신창리의 대머리산, 즉 신도리의 녹남봉이라고 추정했다. …… 중 략 …… 군산은 감산리(柑山里) 남쪽에 우뚝 솟은 화산(335m)으로 산 전체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다. 화산 활동의 말기(終期)에 화산탄(火山彈)을 많이 사방으로 날아 흩어졌다. 이 화산체(火山體)의 규모는 앞서 기록의 기사(記事)와 어깨를 겨룰만하다.

오히려 상서로운 산[瑞山]으로 의심될만한 것은 대정 동남쪽 15리의 해안에 불쑥 솟은 송악산이라고 하며, 『해동역사』에 전하는 ‘탐라 바다 가운데 남쪽[耽羅海中之南]’에 있는 산에 해당한다. 송악산의 새로운 화구는 비양도와 그 솜씨가 교묘하게 같다. 현무암 쇄설물의 퇴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에 깊이 깔때기 모양 분화구를 갖고 있다. 침식 작용도 심하지 않고 이 분출(噴出)의 새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화산의 규모는 기사(記事)보다 작음으로 쉽게 상서로운 산[瑞山]을 송악산이라고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서산(瑞山)과 유사한 발음의 지명(地名)을 『1/5만 지질도』를 놓고 찾아보니 제주읍 동쪽 35리의 함덕리의 바다 가운데에 특 튀어나온 서우봉(犀牛峰)이라고 기록된 산이 있다. 또 성산포 남

쪽에 성산(城山)이 있지만 대정설에 적합함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찾아야 한다. 이외 전설에 한라산의 북쪽 중간 산허리에 소산봉(霄山峯)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다. 이 언덕은 하룻밤에 만들어진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고 한다.

위에 의하면, 1925년에 나카무라 신타로 교수는 1002년의 분화를 비양도, 1007년의 분화를 군산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하라구찌 구우망(原口九萬)은 나카무라 교수가 추정하는 1007년에 분화한 상서로운 산(瑞山)의 위치를 확실하게 참고될 만한 근거 없음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군산은 산 전체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산 활동의 말기에 화산탄(火山彈)을 많이 사방으로 날렸기 때문이다.

2. 최근 발굴·문화유적 보고서에 나타난 상서로운 산의 위치와 고고학적 유적·유물

먼저 목종 10년(1007)에 용출한 상서로운 산의 높이가 330m, 주위가 16km 정도였다. 이를 관련시키면서 최근에 고고학적 업적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도의 유적으로는 고인돌이 있다. 우도의 고인돌은 우도봉 서측 해안가에서 성산 일출봉과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상석은 길이가 200cm, 너비가 150cm, 두께가 60cm 정도의 크기로 모서리는 떠내어 다듬은 흔적이 있다. 이 고인돌의 축조한 시기에 해당하는 마제석부 등의 유물이 인근에서 출토되었다. 이 마제석부는 괘지리식 토기와 비슷한 기원 후 1~5세기경에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도의 유물로는 돌도끼와 몽돌이 있다. 돌도끼는 길이 8.4cm, 너비 4.6cm, 두께 3.1cm로 비교적 작은 것이다. 이 돌도끼는 강도가 센 돌을 이용하여 한 쪽을 예리하게 간 것으로 나무를 자를 때나 사냥을 할 때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돌도끼의 발견한 장소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 암반으로 높게 둘러쳐 있다. 다음으로 몽돌은 음식이나 약초 등을 빵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몽돌도 돌도끼가 발견된 현장에서 습득했다.¹⁴⁾

가파도에는 선돌, 고인돌, 패총, 유물산포지가 있다. 먼저 가파도의 선돌은 하동마을과 인접한 섬의 남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선돌이 있는 주변에는 고인돌의 산재해 있다. 따라서 가파도의 선돌은 고인돌과 관련된 유적으로서 무덤 앞에 세우는 쫓돌의 성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가파도의 고인돌은 섬의 남서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60여기 정도가 알려져 있다. 이는 외관상으로 확인할 뿐으로 발굴조사하지 않는 한 고인돌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가파도의 고인돌은 동일한 계열에서 일정하게 규격화된 재료로 쓰는 돌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분은 매몰되어 전체 형태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가파도 고인돌의 상석에는 상부 혹은 측면에 인위적으로 다듬은 흔적과 네모반듯한

14) 우도지 편찬위원회, 『우도지(牛島誌)』, 1996년 11월, 「역사와 유적」.

구멍을 뚫어 있는 것이 남아 있다. 그 다음 가파도의 패총은 섬의 북동쪽 해안에 근접해 있다. 가파도의 패총은 지표 하 20~30cm에서 조개 껍데기 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유물로는 토기와 석기가 확인되었다. 토기는 광지리식 토기로서 표면에는 거칠고 두께도 두텁다. 석기는 공기와 흙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파도의 유물산포지는 가파도 패총과 가까운 남서편 일대에 있다. 이 가파도의 유물산포지에는 지표에서 일부 토기 및 석기가 확인되었다. 현재 가파도의 고인돌은 외형적 형태로 보아 남방식과 개석식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고인돌은 가파도 남서쪽 해안에 산재한 재료로 쓰는 돌이었기에 가까운 해안에서 운반하기가 용이한 지점에 있다. 가파도의 패총과 유물산포지가 위치한 곳은 고인돌과 대각선 방향에 있었다. 이는 바로 거주공간과 무덤공간이 다른 곳에 위치해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파도의 선돌·고인돌·패총·유물산포지는 기원 전 1세기로부터 기원 후 200년경까지 가파도에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유적이다.¹⁵⁾

또한 비양도에는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있다.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는 거주했던 흔적이다. 그 거주했던 흔적의 지점은 비양도의 남쪽이다. 다음 비양도에서 나타난 유물로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탐라시대의 토기와 석기이다. 신석기 시대의 토기 편은 비양도 북서쪽인 전경 초소가 있는 곳이다. 신석기 시대 토기로는 4000~5000년 시기에 압날점렬문 토기 파편 2점이 확인되었다. 탐라시대 전기(기원 후 1년~500년)의 토기는 비양도 남쪽 편에 마을이 있는 포구와 보건진료소가 있는 일대 지역에 분포해 있다. 탐라시대 전기의 토기는 두께가 두터운 광지리식 토기일 뿐만 아니라 현무암제로 된 석기 1점도 확인되었다. 이 석기는 원래 양면 가공한 타제석기로 칼과 같은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그리고 현재 군산 일대에는 선사 시대의 유적으로 고인돌과 유물산포지가 있다. 고인돌은 상예동 1호·2호·3호·4호이다, 상예동 고인돌 1호·2호·3호·4호의 위치는 현재 상예동 속칭 난이머들 근처인 '배□ 동산'에 3기와 상예동 1~3호 군락에서 남쪽으로 200m 가량에 존재하고 있다. 상예동 고인돌 1호·2호·3호의 간격은 대략 10m 내외에 배치되어 있다. 상예동 고인돌 1호 덮개돌의 상면에는 5~6개 정도의 성혈(性穴)이 확인되었다. 상예동 고인돌 덮개돌의 하부에는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돌이 쌓여 있고 그 위에 덮개돌을 얹혀 놓았다. 상예동 고인돌 1호에 원형으로 돌아가는 돌이 쌓인 사이 틈새와 받침돌 사이에서 광지리식 적갈색 토기(기원 1년부터 500년까지)편이 수습되었다. 상예동 고인돌 2호는 덮개돌이 지표에 맞닿아 있어 개석식 지석묘로 추정하고 있다. 상예동 고인돌 3호는 덮개돌의 측면에는 돌을 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더구나 상예동 고인돌 1호~3호에서 발견되는 토기편이 상모리식 말기 공렬·각목 토기의 태도가 유사하여 상예 마을의 형성 시기를 올릴 수 있을 가능

1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가파도학술조사보고서』, 2001년 4월.

1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비양도학술조사보고서』, 2003년 4월.

성이 높은 편이다. 상예동 고인돌 4호는 상예동 1~3호 군락에서 남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상예동 고인돌 4호의 동서 측면에는 치석흔이 보이고 있다. 다음 상예동 유물산포지는 현재 상예동 고인돌 1~4호 군락을 포함한 3,000평 범위 내 지점이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광지리식 적갈색 토기보다 두께가 얇은 토기편이 수점이 수습되었다. 대부분의 유물은 지표 하층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또한, 현재 군산 주변 일대에는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있다. 군산 주변 일대의 유적으로는 바위그늘집자리와 고인돌, 유물산포지가 있다. 먼저 바위그늘집자리는 안덕계곡과 창고천에 있다. 안덕계곡바위그늘집자리(1)·(2)은 현재 안덕계곡 매표소 가까운 지역과 매표소에서 동쪽으로 30m 지점에 있다. 이 안덕계곡바위그늘집자리(1)의 입구 직경은 11m, 입구 높이는 2.5~2.8m, 굴 입구에서 안쪽까지의 깊이는 7m이다. 굴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고내리식 토기 편으로 굴의 북편에서 확인되었다. 안덕계곡바위그늘집자리(2)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고내리식 토기 편과 공이돌이 확인되었다. 이 유물이 출토된 위치로는 동굴모서리 벽 부분이다.

다음 바위그늘집자리(1)·(2)은 화순리 화력발전소에서 북쪽으로 800m 정도 떨어진 창고천 절벽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창고천 바위그늘집자리(1)의 입구는 북서향이며 직경은 7.6m에 이르는 2개의 바위그늘이 연결된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창고천 바위그늘집자리(1)에서는 광지리식 토기와 공이 등이 확인되었다. 창고천 바위그늘집자리(2)의 입구는 남동향이며 직경은 11m에 이르고 모두 3개의 바위그늘이 연결된 아치 형태이다. 중앙굴의 바닥은 암반 층으로 그 위에 10~12cm 정도가 자갈과 섞인 모래층이 있다. 이 모래층 위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은 창고천 고인돌 1호·2호, 창천리 고인돌 1호·2호·3호·4호가 있다. 창고천 고인돌 1호와 2호는 창고천 가운데에 있는 둔덕에 위치해 있다. 이 고인돌은 장방형 쉼의 덮개돌을 사용했다. 창고천 고인돌 1호와 2호의 주변에는 광지리식 토기 편과 방추자, 석기류 등의 다수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절벽의 경사면에서도 여러 편의 토기가 노출되어 있다.

창천리 고인돌 1호는 현재 대평리 마을회관에서 동북쪽으로 3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덮개돌의 형태는 네모꼴에 가까운 장방형이고, 장축 250m, 단축 235m, 두께 41cm이다. 현재 남동향은 장축 방향과 일치하여 받침돌이 없이 개방되어 있다. 돌방의 내부 지면에 50cm 지점에는 베갯돌로 보이는 판석이 놓여 있다. 매장 시설은 지상에 있는 곳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기원 전후 시기에 해당하는 광지리식 토기편 수 점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창천리 고인돌 3호와 4호는 군산 정상에서 한단 내려온 평탄한 지대에 위치해 있다. 창천리 고인돌 3

17) 서귀포시·제주대학교 박물관, 『서귀포시문화유적분포지도』, 2000년 8월.

호는 장축 270cm, 단축 205cm, 평균 두께 70~80cm이다. 장축은 북서향이며 동서로 길게 놓여 있다. 덮개돌 하단에는 고임돌이 보이지 않으나 고인돌을 끝냈던 흙줄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창천리 고인돌 4호의 크기는 장축 205cm, 단축 170cm, 평균 두께가 40~50cm이다. 이 고인돌에서 동편 5m 정도 벗어난 밭에서 탐라시대 전기의 괭지리식 적갈색 경질토기와 돌을 뚫었던 석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천리 유물산포지는 현재 대평리 마을회관에서 약 300m 지점 일대에 있다. 이 유물산포지에는 창천리 고인돌 1호와 2호 주변에서 많지 않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 유물산포지는 해발 30m 정도로서 바로 북쪽 뒤편으로 해발 330m의 군산이 있다. 유적 주변으로는 2급 추천 토양이 분포하고 1급 토양은 서북쪽으로 0.5km 떨어져 좁은 범위에 있을 뿐이다. 이 창천리 유물산포지에서는 탐라시대의 괭지리식 적갈색 경질토기(기원 1년부터 500년까지) 수 점이 발견되었다.¹⁸⁾

V. 맺음말 - 향후 과제와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서 향후 과제와 제언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로, 세종 14년(1432)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7년(1425) 제주목사 조희정이 예조에 보고한 기록이었다. 조희정 제주목사가 보고한 기록은 먼저 고려 목종 5년(1002) 6월에 탐라에서 산에 구멍 네 개가 뚫어서 붉은 물이 치솟아 올랐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10년(1007)에는 바다 가운데 산이 솟아 나오는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 벼락 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 칠주야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었는데, 산에는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만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다보니 석류황(石硫黃)과 같기도 하여 사람들이 갈수가 없어서 태학박사(太學博士) 전공지(田拱之)가 몸소 산 아래에까지 나아가 그 모양을 그려서 나라에 바쳤다는 내용이다.

둘째로, 문종 원년(1451) 8월에 완성한 역사서인 『고려사』 「지-오행 삼」에는 태학박사 전공지가 나라에 보고한 기록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하여 목종 5년(1002)에는 ‘5일 만에야 그 치어서 그 물은 모두 엉키어 기왓돌이 되었다’는 기록을 추가했다. 다음으로 목종 10년(1007)에는 ‘상서로운 산의 높이가 백여 장(丈, 330m)이 되고 주위가 사십여 리(里, 16km)가량 되었다’는 기록을 추가했다. 15세기 중반까지는 목종 5년(1002)과 목종 10년(1007)에 탐라에서 일어난 천지 자연의 변동과 상서로운 산의 높이와 주위만 밝혀져 있었다.

셋째로, 중종 26년(1531)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목종 10년(1007)에 용출한 상

18)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남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 2003년 9월.

서로운 산은 대정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서로운 산이 위치를 비정하는 ①가파도 설, ②군산 설이 나타났다. ①가파도 설은 병와 이형상의 『남환박물』 「지도」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병와 이형상은 목종 10년(1007)에 상서로운 산의 주위가 사십여 리이었기에 가파도로 위치를 비정하였다. 하지만 2001년 4월에 간행한 『가파도학술조사보고서』에는 가파도에 선돌, 고인돌, 폐총, 유물산포지가 있었다. 곧 가파도에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선사 시대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목종 10년(1007)에 높이가 330m이 되며 주위가 16km 가량되는 상서로운 산이 용출을 가파도에서 했다면 그보다 1천년 전에 살았다는 유적과 유물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다음 ②군산 설은 이원조 제주목사의 『탐라지초본』 「대정-고적조」와 나카무라 신타로의 「제주 화산도 잡기」(『지구』 제4권 제4호)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원조 제주목사는 목종 10년(1007)에 ‘상서로운 산이 대정현에 위치하고 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군산(軍山)이라고 위치를 비정하였다. 나카무라 신타로는 목종 10년(1007)에 상서로운 산이 집괴암(集塊岩)을 유출시킨 군산이라 비정하였다. 하지만 하라구찌 규우망(原口九萬)의 「제주화산도(濟州火山島)」에서 ‘군산이 산 전체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산 활동의 말기에 화산탄(火山炭)을 많이 사방으로 날리었기 때문에 1007년에 분화한 상서로운 산(瑞山)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8월에 간행된 『서귀포시문화유적분포지도』와 2003년 9월에 간행된 『남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에는 현재 군산 주변 일대에는 바위그늘집자리와 고인돌, 유물산포지가 있었다. 현재 군산 주변 일대(상예동·창천리·감산리·대평리)에는 2천년 전부터 1천 5백년 전까지 선사 시대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목종 10년(1007)에 높이가 330m이 되며 주위가 16km 가량 되는 상서로운 산이 용출을 군산 일대에서 했다면 그보다 1천년 전 또는 5백년 전에 살았다는 유적과 유물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다.

넷째로, ③비양도 설은 김상헌의 『남사록』 권지삼 10월 17일에 실려 있었다. 이에 목종 10년(1007)에 용출한 상서로운 산이라고 비정하고 있다. 나카무라 신타로의 「제주화산도잡기」(『지구』 제4권 제4호)에는 고려 목종 5년(1002)에 분화를 서북부의 해안에 가까운 비양도라고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양도에는 화산에 의해 터진 구멍이 몇 개 있을 뿐만 아니라 비양도의 지질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3년 4월에 발간한 『비양도학술조사보고서』에 비양도에는 선사시대의 거주했던 흔적과 신석기 시대의 토기·탐라시대의 토기와 석기 등 유물이 있었다. 이 신석기 시대의 토기·탐라시대의 토기는 기원전 4000~5000년 신석기 시대에 압날점렬문 토기 파편과 기원 후 1년~500년 광지리식 토기이었다. 이를테면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부터 2천년 전까지 비양도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목종 5년(1002)에 네 개의 구멍이 뚫어지며 붉은 물이 치솟아 나오다가 5일에 그칠 뿐만 아니라 목종 10년(1007)에 높이가 330m이 되며 주위가 16km 가량되는 상

서로운 산이 용출을 비양도에서 했다면 그보다 6천년 전 또는 1천 5백년 전에 살았다는 유적과 유물은 현재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다섯째로, ④우도 설은 최보의 『탐라시 삼십오절』(김상헌의 『남사록』에 수록) 중에 21절에는 목종 10년(1007)에 용출한 상서로운 산이라고 비정하였다. 그러나 1996년 11월에 편찬한 『우도지』에는 고인들의 유적과 마제석부의 유물이 있었다. 곧 우도에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또는 1천 5백년 전에 선사 시대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목종 10년(1007)에 높이가 330m이 되며 주위가 16km 가량 되는 상서로운 산이 용출을 우도에서 했다면 그보다 1천년 전 또는 5백년 전에 살았다는 유적과 유물은 현재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문헌학으로 본 상서로운 산의 위치를 가파도·군산·비양도·우도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연구로 가파도에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군산 일대에는 2천년 전부터 1천 5백년 전, 비양도에는 7천년 전부터 2천년 전, 우도에는 2천년 전 또는 1천 5백년 전에 유적과 유물이 있었다. 가파도·군산·비양도·우도에 있어서는 상서로운 산의 용출하지 않았음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려 목종 5년(1002)·목종 10년(1007)에 용출한 상서로운 산에 대해서는 지질학·고생물학·식생학·지리학적 연구와 과학적 연대 측정을 하기 전에 확실히 단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질학·고생물학·식생학·지리학에 관련하는 학자들이 상서로운 산의 용출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헌적으로 본 상서로운 산의 위치로 비정하는 가파도·군산·비양도·우도 등에 지질학·고생물학·식생학·지리학·역사학·고고학에 관련된 학자들이 심층적 연구인 종합적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高麗史』·『慶尙道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
金尙憲, 『南槎錄』(奎 147270·147271).
이원진 씬, 김찬흠·고창석·김혜우·김상욱·조성윤·강창룡·오창명·오수정 함께 옮김, 『역주 탐라지』, 도서출판 푸른 역사, 2002, 7.
李衡祥, 『耽羅巡歷圖·南宦博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 총서 제1집, 1979.
李源祚 『耽羅誌草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4), 1989.
정두희,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1)·(2)』, 『歷史學報』第69輯·第70輯, 1976.3, 역사학회.
강창룡, 「狽來洞의 設村과 歷史(Ⅰ)」, 『西歸浦市』 제6호, 정아 기획, 1997.2.
강창룡, 「狽來洞의 設村과 歷史(Ⅱ)」, 『西歸浦市』 제7호, 정아 기획, 1997.11.
강창화, 「耽羅時代 狽來마을의 位置와 性格」, 『西歸浦文化』 제6호, 2002, 서귀포문화원.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남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 일원피앤씨, 2003. 9.
상예동새마을문고, 『내고장 바로 알기-예래동의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반석인쇄사, 1999.
서귀포시·제주대학교 박물관, 『서귀포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한국지도원, 2000. 8.
우도지 편찬위원회, 『牛島誌』, 태화인쇄사. 1996. 1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가파도학술조사보고서』, 대영인쇄사, 2001. 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비양도학술조사보고서』, 제주사람들, 2003. 4
제주사정립추진협의회, 『耽羅, 歷史와 文化』, 세광인쇄사. 1998.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加波島의 先史文化研究(Ⅰ)」, 『濟州文化財研究』 창간호, 2002.
中村新太郎, 「濟州火山島雜記」 『地球』 제4권 제4호, 1925.
原口九萬, 「濟州火山島」 『小川博士還曆記念地學論叢』, 1930.
原口九萬, 「濟州島ノ地質」 『朝鮮地質調査報』 第十卷ノ一, 1931.
川崎繁太郎, 「濟州島の地質學的 觀察」 『文教の朝鮮』 10월호, 1930.